# '수출로 잘사는 장흥 만들기' 총력전

군, 수출기업 35곳 방문 현장소통 각종 지원책 소개하고 애로 접수 상반기 수출액 전년비 134% 달성

장흥군이 수출기업 35곳을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수출확대 지원과 관련 시책발굴에 나섰다.

이번 현장방문 간담회는 최근 내수경기 침체와 대외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출기 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추진됐다.

군은 간담회에서 ▲2025년 수출특화품목 직불 금 지원사업 확대 ▲수출컨테이너 운임비, 포장 재 구입비 및 해외인증 취득비 지원 등 수출경쟁 력 강화지원사업 ▲농수산물 해외판촉행사 등 장 흥군에서 추진하는 수출확대 지원 시책 등을 소개 했다.

또 수출직불금 증액, 수출상담회 확대 추진 등 다양의 현장의 건의사항을 접수 후 검토 중이다.

장흥군은 미국 관세 조치 등에 따른 불안한 수출 환경 속에서도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 실시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서 미국 등 3개국과 총 3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



장흥군 관계자들이 지역 수출기업을 찾아 현장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

〈장흥군 제공〉

무협약(MOU) 체결했으며, 5개국과는 총 74만 달러(한화 약 10억 7000만원)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수출업체 가운데 해외 규격 미인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 수출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중국 청도 맥주 축제, LA 한인축제 등 농특산물 해외 판촉행사도 운영 중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5년 상반기 수출액이 220억으로 전년도 대비 134%를 기록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지역에 맞는 수출 지원정책을 통해 2025년 수출 500억 달러 목표달성을 하고, '수출로 잘 사는 농어촌 지역 장흥'을 만들어 가겠 다"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 강진군, '스마트집들이 플랫폼' 구축 본격 착수

#### 빈집 관리 디지털화 행정 혁신

강진군이 프롭테크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집들 이 플랫폼' 구축에 본격 착수하며, 디지털 전환을 통한 행정 혁신과 인구 유입 촉진에 나섰다.

프롭테크(Proptech)는 '부동산(Property)' 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최신 디지털 기술 을 접목해 부동산의 관리·유통·활용 방식을 혁신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 사업은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는 5억원으로 이 중 80%는 국비로 충당된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강진군은 지난 29일 군

청 대회의실에서 '스마트집들이 플랫폼 착수보고 회'를 개최했다.

스마트집들이 플랫폼은 ▲기존 자료의 디지털 화로 통계 기반의 행정 데이터 구축. ▲빈집 위치 와 주변 인프라 정보 등 시각화 자료 제공 ▲정책 을 실시간으로 추천하고 신청까지 이어지는 인구 정책 통합서비스 챗봇 구축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플랫폼 구축으로 빈집 관리와 인구정책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스마트행정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 구현 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 함평군-초당대학교 미래상생 협약 체결

함평군이 초당대학교와 손잡고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기위한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함평군은 지난달 31일 초당대학교(총 장서유미)와 '지역활 력 회복 및 지속 가능 한 발전을 위한 미래 상생 협약'을 체결했 다고 밝혔다. 〈사진〉 협약은 인구소멸과

청년 인구 유출 등 지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 대응 전략의 하나로 마련됐다.

특히, 식품소재 중심의 농업소득 발굴 등 식품 산업 관련 시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지역 농산 물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청년층의 농식품 분야 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글로벌 조리학교 유치 ▲그린바이오 산업 전주기 생태계 구축 ▲정주형 청년 인재 양성 등 행정·제도적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함평군 - 초당대학교

미래상생 협약식(MOU) 📟

군은 향후 초당대학교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청년 창업·취업 지원, 지역특화산업 연계 교육, 지역 정주기반 확충 등 다양한 실천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며 서남권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협약은 지역소멸이라는 당대의 과제를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는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초당대학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청년 인재가 지역에 머무르고, 교육·산업·삶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함평의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 버려진 현수막, 청소년 손에서 친환경 허수아비로

### 담양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위원회 환경 보호 자원 재활용 가능성 제시

담양군 청소년들이 버려지는 현수막을 재활용 해 허수아비를 만들며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 리는 친환경 실천 캠페인을 펼쳤다.

담양군은 지난 31일 담양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들이 모여 폐현수막을 활용한 허수아비 제작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담빛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참여 위원회가 '환경지킴 실생활 아이디어 공모전'의 하나로 추진했으며, 청소년들이 직접 폐현수막 허수아비를 만들며 버려지는 자원의 새로운 활 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허수아비에는 '환경을 지켜요', '불편함 은 잠시, 편안함은 영원히 자연과 더불어', '자연 은 소중한 우리의 보물' 등의 메시지를 적어 환경 보호의 의미도 담았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버려지는 현수 막을 그냥 버리기엔 아깝고 환경에도 해롭지만, 직접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며 작은 실천으로 환경 보호에 보탬이 된 것 같아 보람을 느꼈다"라 고 말했다.

담양군은 지난 5월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지킴 실생활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해 '재활용 수생식물 화분', '꽁포인트 줍깅'등 다



담빛청소년문화의집이 주최한 친환경 실천 캠페인에서 청소년들이 버려지는 현수막을 재활용해 만든 허수아비를 설치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양한 환경 보호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선정된 11점의 사진을 담빛청소년문화의 집 1층 로비에서 지난 6월 26일부터 전시하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시선으로 환경

문제를 고민하고 실천으로 이어진 활동이 매우 의미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과 함 께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 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 나주시, 188건 '계약심사' …예산 7억원 절감

#### 상반기 공사·용역·물품 구매심사

나주시가 올해 상반기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예산 7억900만원을 절감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나주시는 상반기 본청과 직속 기관에서 추진한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 총 188건에 대해 원가 산 정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한 결과 이같이 성과를 거 뒀다고 밝혔다.

상반기 분야별 절감액은 공사 6억3000만원, 용역 6600만원, 물품 구매 1300만원 등이다. 심사

대상은 1억원 이상 공사, 5000만원 이상 용역, 1000만원 이상 물품 구매·제조 계약 등이었다.

나주시는 계약심사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직무

교육, 사전 협의 강화, 현장 방문 심사, 우수사례 전파 등 다양한 개선 활동을 병행했다.

나주시는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하반기에 도 계약심사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 산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사업 추진에 투입하 겠다"라고 말했다.

- 스까 구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